흔들리지 않는 내일의 안전 향해 견고히 쌓아가는 안전체계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이승열 **사진** 김재이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는 2020년 대한항공으로부터 분리 독립했다.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지 4년, 그들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스템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그렇게 쌓인 흔적은 4년을 넘어 40년 그리고 더 훗날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안전보건체계로 거듭나고 있다.

협력과 소통 속 싹트는 안전보건문화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는 2020년 12월 18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기내식 제조업체로서 대한항공과 국내외 항공사에 직접 제조한 기내식과 기내 판매 물품을 납품한다. 광화문 본사와 인천(2곳), 김포, 부산, 제주 등 공항 인근에 사업장 5곳이 있고,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 안전보안팀은 전체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

전체 노동자 수는 2,800명가량, 그중 협력업체 노동자는 약 2,500명에 달한다. 말 그대로 협력하는 관계지만, 사내 안전보건문화에 협력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은 꽤 까다로웠다. 자칫 타 기업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협력과 개입 사이, 그 어딘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 안전보안팀은 소통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하세요",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이끌었다.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파악한 원인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안전보건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안전보안팀의 안전·보건관리자와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재무 담당자로 구성돼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며, 한 달에 한 번 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항 등을 공유한다. 안전보안팀 이현정 보건관리자는 협의체 조직 이후 일이 더욱 수월해졌다고 말한다.

"협의체에서는 매달 중점적인 안전보건 주제를 선정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제시해 주세요. 이와 관련한 의견을 편하게 나누고, 간담회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생겨 업무가 훨씬 편리해졌기에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더 촘촘히 할 수 있는 장점이 된 거죠."

안전보안팀은 최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소통을 시작했다. 일일이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아도 점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인식을 만드는 겁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지금의 분위기가 더욱 안전한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알림, 공지사항 등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고, 피드백 또한 실시간으로 가능해 양방향의 신속한 안전보건 관리 또한 보장된다.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처음이라 가능했던

다양한 소통을 실천 중인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 안전보안팀. 현재 독립 이후 기업의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문화를 새로이 정립하는 과정에 있다. 초기에는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팔레트를 놓는 위치까지 지정할 정도로 신경 쓸 일이 많았다. 그래도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완성된 그림을 수정하는 것보다 수월하다는 말이 있듯, 안전보안팀 김총리 대리는 오히려 처음이라서 본인들만의 안전보건문화를 잘 이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설계 단계부터 투입되다 보니 우리 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노동자분들과 협업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미리 적응한 업무를 재숙지하며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함께 해 손발을 맞출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전문가의 경험도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전보건체계 정립에 도움이 됐다.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 기간을 통해 여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했으며, 화학물질 반입 절차 및 취급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또한,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의 보건관리자는 물론, 협력업체 보건관리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도 향상할 수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안전한 오늘을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전보건문화를 싹틔우기 위해 안전보안팀이 흘린 땀은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땀은 이제 '변화'라는 새싹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안전보안팀은 노동자로부터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출받는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아이디어는 다소 광범위했고, 때로는 귀찮아하는 노동자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들의 제안을 통해 사업장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체감하면서 노동자의 참여는 활발해졌고, 의견 또한 구체적으로 변했다.

폐수처리장 입구에 내부 이산화탄소 수치를 표시하고 내부 작업 시 농도가 기준 이상 상승하면 알림을 주는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셔터가 닫히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 등 노동자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변화는 다양하다. 안전보안팀 이승재 팀장은 이를 앞으로의 안전보건문화체계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화로 바라본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다'라는 인식을 만드는 겁니다. 급여, 복지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안전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거든요. 노동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발전시키는 지금의 분위기가 더욱 안전한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진 건물은 거센 외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독립 후 본인들만의 안전보건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인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 안전보안팀. 여전히 할 일도, 흘릴 땀도 많지만, 현재 구축하고 있는 안전보건체계가 먼 미래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믿음 아래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

Mini Interview

"다니고 싶은 직장이 곧 안전한 직장입니다"

안전보안팀 이승재 팀장

Q. 대한항공 씨앤디서비스 안전보안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안팀은 ▲산업안전계획 ▲산업안전운영 ▲항공보안안전 등 세 파트로 구성돼,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 교육 ▲헌혈 캠페인 ▲안전보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노동자가 계속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다짐이자 목표입니다. 노동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면서 외부에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